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2020년 8월 31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 일반개황

<b>면적</b> 1,139천 km <sup>2</sup> 	<b>인구</b> 4,908만 명 (2020 <sup>e</sup> )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경제실리외교 
<b>GDP</b> 2,681억 달러 (2020 <sup>f</sup> ) 	<b>1인당GDP</b> 5,269달러 (2020 <sup>f</sup> ) 	<b>통화단위</b> Peso (Ps) 	<b>환율(U\$기준)</b> 3,698.22 (2020 <sup>f</sup> ) 

-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남미 내 인구 3위, GDP 4위에 해당하는 인구-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음.
- 원유, 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정부의 친시장 정책 등에 힘입어 2019년 3.3%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가 취약점으로 지적받음.
- 지난해 이반 두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치고 11월 전국적인 파업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사회적 혼선을 빚었으나,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하였고 친정부연합을 확대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반군단체의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과 인권 탄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인 가운데, 코카 재배가 잠재적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난민 문제 등으로 베네수엘라와 갈등 관계에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북한과는 1988. 10. 24 )

**주요협정** 문화협정('76), 사증면제협정('81), 과학기술협력협정('82), 무역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이중과세방지협약('14), 자유무역협정('16)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 출	813,718	1,011,626	1,143,075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수 입	651,351	834,392	718,214	커피, 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59건, 332,341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경제성장률	2.1	1.4	2.5	3.3	-7.7
소비자물가상승률	7.5	4.3	3.2	3.5	2.3
재정수지/GDP	-2.3	-2.7	-2.6	-2.4	-7.8

자료: EIU

### 2020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과 대외 수요 위축으로 마이너스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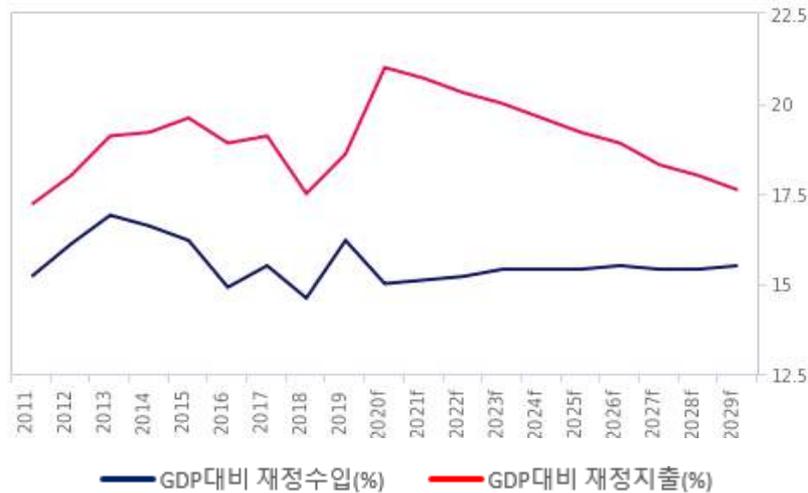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2016~17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저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8~19년에는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대통령 및 이반 두케 현 대통령 행정부에 이어진 친시장 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전환하여 지난해 3.3%의 성장을 시현하였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하락 및 대외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민간 소비와 총고정투자 또한 전년 대비 각각 9.2%,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 -7.7%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3월 25일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4월 27일부터 강도 높은 안전 지침을 전제로 점진적 경제활동 재개를 허용하여 일부 제한 조치들은 해제되었으나, 전반적인 이동 제한은 여덟 차례 연장되어 8월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임.
- 이에 현금흐름 및 소비 진작을 위한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4.25% → 3.75%(3월) → 3.25%(4월) → 2.75%(5월) → 2.5%(6월) → 2.25%(7월))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2020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9%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음. IHS Markit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내 2%까지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이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연내 경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EIU에 따르면, 2019년 10.5%였던 콜롬비아의 실업률은 지난 4월 19.8%, 5월 21.4%로 급증한 이후 6월에는 19.8%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주요 도시의 실업률이 여전히 24%대를 유지하는 등 2020년 연평균 실업률이 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3월 유가 폭락의 여파로 폐소화 가치가 하락한 뒤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음.

## 국내경제

### 에너지 국제가격 침체에 따른 정부 수입 위축과 대규모 부양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

- 대외 수요 불안정과 에너지 국제가격 침체로 정부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저소득 가구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GDP의 1.4% 수준인 14.8조 페소(약 4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공공 지출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6월 15일 재정준칙위원회 발표에서 2020~21년의 재정수지 적자 관리 목표가 연기되어 추가 부양책이 실시될 여지가 커짐에 따라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지난해(-2.4%)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IU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동 수치는 기존 -4.3%에서 6월 10일 -7.1%, 7월 10일 -7.8%로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음.

콜롬비아 재정 수입·지출 추이 및 향후 전망



자료: Fitch Solutions.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지속 등으로 둔화 전망

- 2020년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 지속과 내수 위축 등으로 인해 2.3%로 전년(3.5%) 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인 3%를 하회하는 수치이며, EIU는 향후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반등을 예상해도 2021년 이후에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sup>f</sup>
경 상 수 지	-12,036	-10,241	-13,117	-13,740	-13,040
경상수지/GDP	-4.3	-3.3	-3.9	-4.2	-4.9
상 품 수 지	-9,176	-4,470	-5,144	-8,451	-9,260
상 품 수 출	34,063	39,777	44,440	42,368	32,388
상 품 수 입	43,239	44,247	49,584	50,818	41,648
외 환 보 유 액	44,976	45,448	46,087	50,528	45,602
총 외 채	138,320	146,477	155,895	159,823	167,057
총외채잔액/GDP	48.9	47.0	46.7	49.4	62.3
D.S.R.	26.2	38.3	35.1	30.2	44.5

자료: IMF, EIU

###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확대 추세 지속 전망

- 2019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2%로 전년(-3.9%) 대비 확대되어, 2017년(-3.3%)부터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음.
- 2018년에는 상품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입 증가에 의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는 상품수출 감소 및 상품수입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 추세를 이어갔음.
- 2020년에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원유 생산량의 5.6% 위축(905,700배럴/일 → 855,000배럴/일)과 유가 급락 등 상품 국제가격 위축이 겹치면서 상품수출이 약 99.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상품수입 감소분을 상회하는 상품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 개선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일부 축소될 전망이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GDP 감소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4.9%로 악화될 전망이다.
- 한편, 콜롬비아는 꾸준한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 증가가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일부 보전해왔으나, 2020년에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 유입액이 4월에 전월 대비 49.5% 감소하는 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외거래

###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기반한 풍부한 외환보유액 유지

- 콜롬비아는 지속적인 친시장 정책을 통한 꾸준한 FDI 유입과 풍부한 해외근로자 송금액을 바탕으로 2019년 말 기준 월평균수입액의 약 7개월분 내외에 해당하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외환보유액 감소보다 가파른 수입액 감소로 인해 동 수치가 8.4개월분까지 개선되고 2020~24년 기간 중 평균 9개월분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단기 유동성 위험은 낮으나, 외채구조는 악화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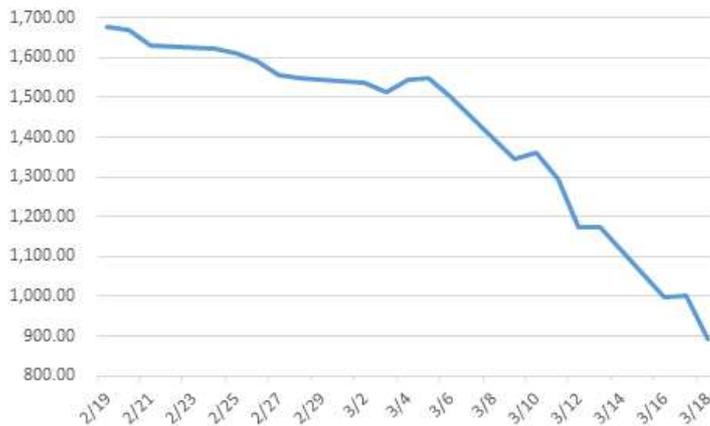
- 2020년에는 총수출이 감소하여 D.S.R.은 30.2%에서 44.5%로,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68.7%에서 373.1%로 급상승하고,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또한 49.4%에서 62.3%까지 급증하는 등 외채 관련 지표가 악화될 전망이다.
- 수출 실적이 급격히 부진한 데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상환부담은 가중된 상태로 평가됨.
- 그러나 2020년 3월 말 기준 외채의 70.9%가 중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IMF와의 신속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협약을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음. 기존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5월 1일 IMF 집행위원회는 콜롬비아에 대해 108억 달러 규모, 2년 기간의 FCL 협약 갱신을 승인하였음.
- FCL은 정치구조 및 경제 성과가 견조한 국가들의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폴란드 5개국이 체결한 바 있으며, 폴란드가 2017년 11월 협약을 탈퇴함에 따라 현재 4개국이 협약을 유지 중임.

## 구조적취약성

### 원유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 콜롬비아는 석탄, 커피 등 원자재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원유 수출이 총수출의 약 40%를 차지하여 유가 등 원자재 국제가격 등락에 따른 경기 변동 폭이 큼.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폭락 시 3월 9일 하루 만에 콜롬비아 증시의 COLCAP 지수가 10.53% 급락한 것을 포함하여 3월 2~18일 기간 중 1,536.48에서 894.03까지 떨어지는 증시 불안정을 겪은 바 있음.

3월 국제유가 하락 당시 COLCAP 지수 추이



### 미비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의 걸림돌

-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부터 4G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로 인프라 부문 투자를 늘려오고 있으나, 부패 및 치안 불안 문제로 인해 성과가 미흡함. 특히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철도 효율성 99위, 도로 인프라 품질 104위 등을 기록하여 육상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4G 프로그램은 도로 신설 및 복구, 터널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16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임. 2014년 5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나, 브라질 건설사 Odebrecht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체되었음. Odebrecht는 2001년부터 중남미 9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4억 6,000만 달러(약 5,230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콜롬비아에는 2014년 1,12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음.
- 한편, 5월 1일 콜롬비아 국가인프라양허청이 발표한 '5G Template'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동 프로그램은 도로 연장 및 개량, 철도 및 공항 건설 등을 포함한 22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그중 총 58.9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12개의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콜롬비아 5G 인프라 프로젝트 1차 추진사업

분야	사업 내용	추정 예산 (백만 달러)
도로	Buga-Buenaventura 고속도로	829
	Valle del Cauca 도로 네트워크	393
	Ruta del Sol 2 고속도로(Pto. Salgar-Barrancabermeja 구간)	663
	Ruta del Sol 2 고속도로(Barranca-San Roque 구간)	551
	Avenida Longitudinal del Occidente 도로	200
	North Accesses 도로	676
하천	Magdalena 강 수로	406
	Dique 운하	223
철도	La Dorada-Chiriguana 철로	406
공항	New Cartagena 공항	1,015
	Rafael Nunez 공항 확장	186
	Cali 공항 확장	338
계		5,886

자료: Procolombia.

## 성장잠재력

### 시장 친화적인 외국인투자여건 조성

- 콜롬비아는 과거 우파의 Uribe 정부(2002~10년) 시기 이후 2010년과 2014년에는 좌파 산토스 정부가, 2018년에는 우파 이반 두케 정부가 들어섰으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좌우 진영 모두 친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0에 따르면, 2019년 콜롬비아의 FDI 유입액은 144.9억 달러로 전년(115.4억 달러)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3위에 해당함.
- 콜롬비아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서 기업경영여건 순위가 190개국 중 67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신용획득(11위)과 소액투자자보호(13위) 등의 부문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음.
- 또한, 2018년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OECD 회원국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풍부한 부존자원과 비교적 큰 내수시장 보유

- 콜롬비아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2위의 석탄 매장량을 비롯하여 원유, 금, 구리, 니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중남미 국가 중 인구 3위 및 GDP 4위의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 칠레, 페루와 태평양동맹을 결성하여 역내 경제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음.

## 정책성과

### 친시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효율성 지수는 하락 추세

- 콜롬비아 정부는 2019년 12월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33%에서 30%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 개혁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향후 관료주의 개선과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하고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하하여 역대 최저 수준인 2.25%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정책효율성 지수(-2.5점~2.5점 척도)가 2016년 0.02점으로 개선된 이후 2017년 -0.07점, 2018년에는 -0.09점으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음.

## 정치동향

### 집권 여당은 친정부연합 구성을 통해 저조한 의석 점유율 극복

- 이반 두케 대통령 소속의 민주중도당은 상·하원 모두 18%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친정부 연합을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재정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를 극복하고 있음. 특히 2020년 초 중도우파 급진변화당과 중도파 국가사회연합당의 합류로 친정부연합이 강화되면서, 향후 정부의 친시장 정책 추진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반 두케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였으나,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반등

- 2019년 10월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수도 보고타와 메데인 등 주요 지역에서 패배하는 부진을 보이고 11월 빈곤과 부정부패 등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 파업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두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한 하향 추세를 거듭하여 지난해 12월 24%의 수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대부분의 주변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위기를 겪은 것과 반대로, 두케 행정부는 발빠르게 엄격한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팬데믹 초기 위기관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이에 두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월 23%에서 4월 5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경기 위축과 실업률 상승이 이어지면서 두케 행정부는 점진적 경제 재개를 허용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대해 클라우디아 로페즈 보고타 시장 등 야당에서는 전면적인 봉쇄가 유지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주지방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하였으며,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지율이 6월 41%까지 떨어지는 등 대응 초기 쌓았던 이미지가 다소 흔들리고 있음.

### 극우파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 명령으로 좌우 갈등 지속

-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은 2002~10년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 민주중도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활동 중인 극우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퇴진 이후에도 우파 진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
- 야당의 이반 세페다 상원의원이 우리베 전 대통령을 재임기간 중 불법 무장단체 창설과 내전 촉발 혐의로 고발하자 우리베 전 대통령은 무고죄 고발로 맞대응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하고 우리베 전 대통령이 대응 과정에서 증인을 협박 및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새로 기소하여 자택 연금을 결정하였음.
- 자택 연금 판결 이후 좌우 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음. 아울러 우리베 전 대통령은 이반 두케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두케 대통령은 FARC 반군 세력은 자유를 얻은 반면 치안 확보를 위해 그들에 맞선 우리베 전 대통령의 자유가 억압당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그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음. 이에 이번 판결이 두케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사회동향

### 반군단체 활동 등 열악한 치안 환경

- 콜롬비아 정부는 산토스 전 대통령 시기였던 2016년 당시 최대 반군단체였던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와 평화협정을 맺고 이들을 해산시켜 치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두케 행정부 들어 반군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평화협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 FARC의 지도자로 평화협정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루시아노 마린과 세우히스 에르난데스가 도주한 뒤 정부가 평화협정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부패한 집권층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영상을 공개하였고, 또 다른 반군세력인 ELN(민족해방군)의 경우 2019년 보고타 경찰학교 차량폭탄 테러를 일으킨 이후 정부와의 평화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현지 매체에 따르면, FARC 잔당은 전국 138개 지역에서 약 4,600명이 활동 중이며, ELN은 전국에 5,000여 명의 부대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반군단체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치안 여건이 열악함.
- 2020년 2월 발표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연례 인권보고서에서는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군·경찰 범죄, 농촌 지역의 공권력 공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난해 콜롬비아 내에서 108명의 인권운동가와 사회지도자가 살해되었던 것에 우려를 표했음.
- 또한, 3월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콜롬비아 내 반군단체 간 교전 등으로 지난해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내전과 폭력으로 25,000여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음. ICRC의 보고서에는 살인과 불법조직 강제 동원을 포함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 987건이 기록되어 있는 등 콜롬비아 내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 만연

- 권력층의 부정부패 근절방안 도입을 놓고 2018년 8월 말에 치러진 국민투표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노력에 제동이 걸렸음. 콜롬비아에서는 부정부패에 따른 비용이 GDP의 4%에 달하고, 콜롬비아 기업의 63%가 뇌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염증이 큰 상황임.

###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지속

- '두 대통령 사태'와 장기간에 걸친 초인플레이션 등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난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로 유입된 베네수엘라 난민은 180만 명을 넘어섰음. 콜롬비아의 만성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베네수엘라 난민 사태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상승 등 현 상황과 결부되어 보다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국제관계

### 우호적인 대미 관계 유지

- 미국은 콜롬비아 총수출의 31% 및 총수입의 26%(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며,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제재 부과에 협력하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20년 미국의 대 콜롬비아 원조 금액 또한 4.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0.3억 달러 증가한 바 있음.
- 다만, 마약인 코카인의 원료로 쓰이는 식물인 코카(coca)의 재배 증가는 대미 마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은 코카 재배의 억제를 콜롬비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콜롬비아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과 미국의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함.
-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지 면적은 201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09천 헥타르에 이르렀고, 2018년 208천 헥타르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212천 헥타르로 다시 약 2% 증가하였음.
- 한편, 미국은 2020년 6월 초 기존의 장비 및 훈련 지원을 넘어 마약 단속을 위해 육군 안보지원여단(SFAB)을 파견하였음. 처음으로 이루어진 미군의 직접 파견이 인접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 정부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 내부에서도 미군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을 위해 콜롬비아의 영토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베네수엘라와의 갈등 지속

-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군단체 FARC의 지도부를 숨겨주고 있고, ELN이 베네수엘라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행정부는 오히려 콜롬비아 내에 자국을 겨냥한 테러 세력이 있고, 이반 두케 대통령이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모의하는 단체의 훈련 캠프를 운영하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하여 양국 간 외교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2020년 5월 초 마두로 정권 전복을 목표로 베네수엘라의 수도 인근 라과이라 해안지역에 침입한 용병 부대가 베네수엘라 군인들과의 교전 끝에 사살 및 체포된 바 있음. 마두로 정권은 이들의 배후에 야권의 대표 인사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있다고 지목한 가운데, 이들이 작전 수행을 앞두고 콜롬비아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콜롬비아는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재조정 경험이 없고, 2020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여신 잔액 47.1억 달러 중 연체액은 460만 달러로 전체의 0.1%에 불과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 (2019.10)	4등급 (2018.10)
Moody's	Baa2 (2019.05)	Baa2 (2018.02)
Fitch	BBB- (2020.04)	BBB (2019.11)

### Fitch,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내에서 하향 조정

- Fitch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의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 우려 및 외채 증가 추세 등을 근거로 2020년 4월 1일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한편, OECD에서는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4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유한 점과 상품 생산이 둔화하고 있는 점 등이 잠재적 등급 하락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제는 2019년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과 친시장 정책 등으로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봉쇄조치와 대외 수요 위축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20년 -7.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전망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9년까지 -2%대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세수 감소 및 대규모 부양책 실시에 따라 -7.8%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급감 등으로 인해 -4.9%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반 두케 대통령은 취임 초기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0년 초 중도 정당들을 끌어들이며 친정부연합을 확대한 데 이어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하여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며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반군단체 활동에 따른 치안 문제와 우리베 전 대통령 자택 연금에 따른 좌우 갈등 고조, 베네수엘라와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 등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Fitch는 2020년 4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재정 여력 감소, 외채지표 악화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한 바 있음.